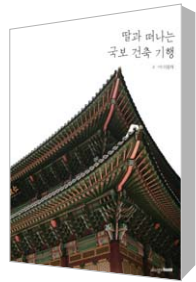


공부에 관심없는 딸 위한 아버지 사랑



딸과 떠나는 국보 건축 기행

이용재 지음
디자인하우스 펴냄 | 1만4800원

이번 주말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 국보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딸과 떠나는 국보 건축 기행〉은 아빠와 딸이 전국 국보 건축물을 답사하며 보고

느낀 기행문이다.

현재 건축평론가로 활동 중인 저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에 관심 없는 딸에게 일찍이 인문학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2002년 택시기사를 하면서 7년 동안 건축 여행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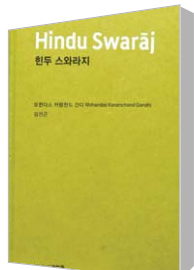
딸 화영이는 "아빠와 국보 건축 답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건축가는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교육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선시대 건축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인문학 양성의 선두자 정도전·도산서원은 이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축물이다.

건축과 역사는 배움의 분야가 아니다. 있는 대로 느끼면 되는 것이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탄탄해지면 현명한 삶을 산다'는 것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어나 기자

인간·사회 모든 갈등 해결 방법



힌두 스와라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지음 | 김선근 옮김
한강수 펴냄 | 1만2000원

수동적 저항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문명인가?
비폭력 저항 운동에 일생을 바친 간디

(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가 1909년 12월 남아프리카 <인디언 오피니언>에 발표한 구자라트 칼럼집 <인도의 자치>를 번역한 해설서다. 그의 <자서전>과 더불어 주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는 <힌두 스와라지>를 통해 진정한 인도의 가치란 무엇인지 고백한다. 조국에 봉사하고,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에 따르자 한 개인의 인도 독립운동 출사표이자 독립선언서로서 인류의 복음서로 인정받는 고심의 산물이다.

인도의 독립운동사를 아는 것은 오늘의 인도를 아는 것과 같다. 인도의 독립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도국 민회'를 알아야 한다. '인도국민회'를 아는 것은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의 <힌두 스와라지>를 아는 것으로 통한다.

수천 년 숭고한 인간의 이상을 설교했지만 현실을 개조하지 못했던 수많은 성자와 도덕적 개혁가에게 도전장을 던진 성인 간디. 보살의 행원 그 자체의 삶을 실천한 간디의 민족해방운동 사티아그라하(1919)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이론과 방법의 열쇠를 지니보자.

기연숙 기자

논리학적 고찰 통해 '유용한 불교' 드러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한자경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1만8000원

물질의 시대, 불교는 어떤 깨우침을 주는가?

현대는 분별의 시대다. 반면 불교는 언어의 집착과 문자적 얽을 집중적으로 경계해 간다. 불교는 언어의 한계와 표현의 제한을 다른 어떤 사유체계보다 여실히 포착하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지불 스님 이후 확립된 한국 선불교의 전통에서는 적극적인 부정을 통해 확고한 공경의 언어관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한다.

불교와 현대과학의 차이는 무엇일까?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은 불교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지 않는다. 불교를 불교 그 자체의 논리로 읽어내고자 노력한다. 저자는 불교 자체의 논리로 불교의 기본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힌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불교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묻는 이에게 권하는 현대적 불교 사유서이다.

이 책은 시종일관 자아(自我)와 비아(非我)·무아와 유아·진아(眞我)와 가아(假我) 등 언어적 분별 속에서 윤회와 해탈·식(識)과 경(境)의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린다. 무

아와 윤회에 대해 논하면서 주제 없는 윤회라는 모순의 도식을 해명한 다. 공(空)과 일심(一心)을 논하면서 유식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저자 역시도 불립문자의 경계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불교를 언어로 풀어내는 데 발생하는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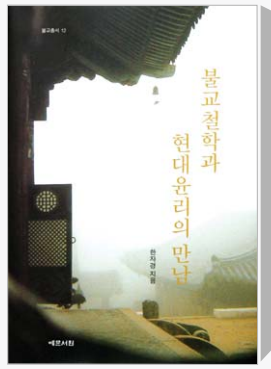
자로써 교(敎)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선종(禪宗)의 입장을 표명하는 표어다.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인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바로 보아 부처가 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상에서 흔히 말문이 막혔을 때 사용하는 '언어도단'은 사전적 의미로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저자는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면서 불교에서는 말의 길이 끊어진 세계를 감싸 안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펼쳐 보인다.

저자가 불교적 관점으로 총 3장에 걸쳐 서술하는 선교겸수(禪敎兼修)를 통한 입선(入禪)·동양 불교와 서양 현대철학의 비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생명 윤리와 생태학의 문제 등은 현대에 유용한 불교 논리학적 고찰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한자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칸트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철학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감함을 글의 곳곳에서 피력한다. 저자는 "중생을 피안으로 견내 줄 수단은 결국 언어와 문자이다. 피안에 이른 뒤에는 버려져야 할 것 일지라도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의 배를 타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이 책을 써야만 하는 것이고 쓸 수밖에 없는 사명을 해명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란 언어와 문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대전 선사가 직접 체험한 반야를 보여주는 체험서



禪에서 본 반야심경

대전·요통(大顛·了通)원저 | 현봉(玄峯)역주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500원

송나라 때 대전요통 화상이 주해한 책으로 수십 종의 <<반야심경>> 주해서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 <禪에서 본 반야심경(大顛和尚注心經)>이 출판됐다. 사전적이거나 교학적인 주해서가 아닌 대전 선사(大顛 禪師)가 직접 체험한 반야(般若)를 구질구질하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체험서이다.

오늘의 문명사회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갈수록 그 양상이 다원화되고 변화는 가속화되어 간다. 이리하여 우리는 잠

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며 온갖 편리와 풍요를 얻게 됐다. 우리가 물질문명의 풍요 안에서 빈곤함을 느끼고 갖가지 사상의 범람 속에서도 갈등이 맞지 않으며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눈을 바깥으로 향해 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을 향해 주시하도록 해 우리들의 삶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됨을 일깨워주는 금언집이 있다.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은 260자로 이루어진 짧은 경전으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응축시켜 전 세계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이다. 한 두 구절은 읊조릴 정도로 대중적인 경전인 <반야심경>은 주해서도 수십 종에 달한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교(敎)와 선(禪)이 둘이 아니라는 말을 체득하고, 교화에 머물던 이가 마음 법을 깨달아 선수행자로 환골탈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어나 기자

문헌학적 근거 통해 밝혀가는 소설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

백금남 지음
한강수 펴냄 | 1만2000원

일본의 천재화가 도수사이 사라쿠, 그가 김홍도였다면?

<사라쿠 김홍도의 비밀>은 위와 같은 가설을 토대로 문헌학적 근거를 통해 밝혀가는 역사 추리소설이다. 조선 후기 제일의 화인 단원 김홍도가 스승 표암 강세황을 만나 그림을 배우고 마침내 도화사에 들어가 정조의 총애를 받게 되기까지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사랑이 제자 조희룡의 눈을 통해 되살아난다.

빈센트 반 고흐의 마니아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바로 일본의 화가 도수사이 사라쿠다. 라파엘로·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세계 3대 초상화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유럽 인상파 화가의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하다.

김홍도가 도수사이 사라쿠라는 가설이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실제 이 둘의 화풍이 닮았다는 점이다. 일본사에 있어서도 교토의 상층 초년(町人)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 28점을 들고 에도의 극장가에 출연하 나타나 140점의 작품을 남기고 10개월 만에 사라진 미지의 인물이 전해진다. 이들은 18세기 동시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며 보다 구체적인 신빙성은 일본에서 사라쿠가 출몰할 당시 조선에서 김홍도의 행적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소설은 뛰어난 예술적 안목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김홍도가 어느 날 사라지면서 시작된다. 저자의 호기심 '만약'에서 시작된 가설이 재구성해 꽃 피운 무한의 상상력을 통해 조선 예인들의 삶을 그려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이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3	인과경	현담	선
4	아벌로카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돌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경	붓다의 마을
7	산사의 아름다운 밤상	이경애	아름다운 인연
8	이와 같이 싶으면	무비	영화실
9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움 살
10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 전통
프랑스의 알과 콩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규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규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저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oy.co.kr

거제도 총명사 이미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전문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파타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화 041)331-6863~5
팩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바랍니다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셔서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